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4주간

제4주간: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들어가는 말

우리는 늘 하는 대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처리하고 문제를 풀고 우리 책임을 수행합니다. 때때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곤 하지요.

우리 문화가 이것을 조장합니다. 이념과 사상들, 여론 조사, 그뿐인가요? TV, 스마트폰, 컴퓨터가 넘쳐 납니다.

우리 문화는 폭력과 성적 탐닉, 약물 중독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타락한 이교인들의 도시 로마에 대한 성 바오로의 묘사가 들어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이런 '혼돈으로부터'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고 계시니다.

하느님이 나라를 '창조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에 유념하세요.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들과 바오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 바오로는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8,19)라고 했지요.

생명과 죽음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코린 4,10) 세례 때에 우리는 상징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생명을 완전히 끝장냈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에서 나와 죽음을 견디어 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왜 죄스러움을 벗지 못합니까? 권능의 사도인 바오로 역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2코린 12,9) 바오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선한 교황 요한 23세는 피정 때에 하느님의 친밀한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어둔 방에 놓인 유리잔에 비치는 빛줄기처럼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잔에도 물에도 빛이 없지만, 태양 덕분에 빛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은 인생의 큰 그림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때로 당신은, 내가 뒤길래 나 자신을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상상한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이 부담스럽지만,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자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신앙을 받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분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다." (요한 6,37)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다." (요한 15,19 참조)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긴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 불교와 힌두교 그 밖의 여러 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기쁘게 자기 종교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찬미!

우리는 한결 더 기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나는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요한 12,32)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 종교적인 혼돈 상태에서 당신의 나라를 구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혼돈 속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요한 3,2)

하느님 아버지는 원초적 혼돈인 빅뱅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부르셨고, 우리 시대의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 자신의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한층 더 긴박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 매일의 삶을 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당신을 보세요. 하느님은 매 순간에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운명을 거의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그분이 거기에 계시며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성 요한의 말을 명심하세요. “마음이 우리를 단죄 하더라도 ...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3,20) 그 모든 것에는 당신 이름도 들어 있어요.

기도 도움말

당신의 기도에 대해 조금 성찰해 보세요. 피정을 시작한 다음부터 기도 준비와 기도를 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마음을 모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떠올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찰하면서 주님께 말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쯤이면 당신이 기도에서 부닥치는 한계와 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해졌을 겁니다. 아마 기도가 잘 안되어 힘겹게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위해 싸운 거룩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기도에 대해 교회가 가진 체험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분심에 빠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는 자신의 “원숭이 마음”을 불평했습니다. 집 주변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불안한 원숭이 말입니다. 위대한 신비가인 그의 마음이 이랬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생각이 꼭 막히고 정리가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에 써볼 만한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을 들숨 날숨의 호흡에 따라 한 단어나 구절씩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이들도 때로 싸워야 했음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은총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쁜 습관을 떠나는 방향이든 좋은 습관을 키우는 방향이든 영원히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성장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을 당신은 알게 되었지요. 성찰입니다. 성 이냐시오는 이 기도를 결코 빠트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이 기도를 하루 일과로 삼을 겁니다. 일주일에 7일 24시간이요. 습관적으로 그날의 선물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면 만족스러운 생활과 무익한 생활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성찰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이나 통하는 겁니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가 “우리 마음 안에 골방”이라고 부른 곳에 갈 때에도 우리는 지금 모습대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당신과 하느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당신의 어떤 부분을 밖에 놔두려는 시도는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기도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 바오로는 분명 메마른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로마 신자들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로마 8,26-27)

이번 주간 기도 중에 꼭 기억하세요. 교회와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도 일하십니다.

제4주간 1일차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청하는 은총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성경에 “성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있다. 우리는 낡고 늙어 가면서 모두가 우리의 낡은 패턴을 따르기를 원한다. 성령께서는 결코 늙지 않는다, 성령은 항상 젊다.

-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당신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혼돈 한가운데에 어떻게 변함없는 상수로 서 계시는지를 알아 가고 있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좋은 씨앗이 많이 뿌려졌습니다. 원수가 활동하여 공격적인 가라지들을 뿌려 놓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이 수확을 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들이십니다.
4. 청하세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3,24-30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단상

혼돈에서 구원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할까요?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원초적인 거룩함을 지닌 채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동안에는 죽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았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76항) 우리는 낙원에서 육을 지닌 채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며, 하느님에 의해 영광 안에서 참만히 ‘신화’(神化)하기로 정해졌습니다.(398항 참조)

그러나 최초의 인간들이 시간과 발전을 자신들이 장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성인의 말처럼 그들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서”(398항)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창조주께는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가 소중하기에 우리의 악한 행실의 결과를 겪게 하였습니다.

이 악행으로 현재의 혼돈들이 초래된 거죠. 전쟁, 인종 청소, 강간, 살인, 약물남용, 아동 학대, 낙태, 테러리즘 등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며, 우리는 이민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광분하고 정치는 무능하지요. 그리고 이것의 끝에는 늘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혼돈이 멀리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은 우리의 일상 안에 있으며 경제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을 통해서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일정들을 곡예하듯이 소화해 냅니다. 노인이 전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돌봄을 요구합니다. 젊은이들은 불필요한 영향력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은 우리 자신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식하고 과로하며, 질릴 정도로 텔레비전을 보고, 소통을 안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혼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혼돈, 피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갈망, 즉 탐욕과 욕정, 시기와 독선의 혼돈입니다. 어떤 자기 수련도 죄가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린 혼돈을 완전히 극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진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세상과 우리 생활과 우리 자신 안에 만연한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도 우리 구원은 다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556항) 우리는 보장된 희망 속에 삽니다.

메모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청하는 은총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화내지 말고, 나를 위해 어둠을 살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 시편 94편, 윌리엄 오맬리(W.J. O'Malley)의 해석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는 당신이 하느님과 갖는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길이와 깊이가 다양하지만, 언제나 모든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2.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혼돈 한가운데에 서 계시는 변함없는 상수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시게 한다면 말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수확은 주인이 합니다.
수확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면서도 자비하십니다.
4. 청하세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3,24-30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돌아보니 하느님께서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새겨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들이 그런 사건들이다.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이다.

이제는 혼돈 속에서 지금 내가 성장하도록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겠다.
그것들은이다.

나로서는 을 선물로 받는 것이 도전으로 여겨진다.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청하는 은총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가 개인적 영역에서든,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든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지휘관이
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 도로시 세이어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열린 마음과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예수님이 혼돈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기로 한 역사적 사실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그분도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허기져서 약해졌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4. 청하세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4,1-11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단상

영적 실망과 우울함, 죄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인 가운데 1/3이 우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실망과 메마름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실망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때에 찾아옵니다. 당신은 죄스러운 삶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아의 깊은 곳에서는 육의 행실이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공포감을 억압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쁘게 지내거나 약물, 알코올, “재미”에 의지합니다. 정신과나 우울증의 문제가 없이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자신이 황폐하다는 거죠.

이런 황폐함의 깊은 뿌리는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랑곳하지 않은 거죠. 악마는 “법이나 관습, 권위 따위 신경 쓰지 말

고 스스로 결정해.”라고 속삭입니다.

악마는 우리 문화에서 활동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유혹자가 인류의 첫 조상들에게 속삭인 것도 바로 이것이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창세 3,5 참조)

인간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항할 때에도 우리는 선 혹은 악이라는 것을 ‘알고’ 반항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섬기기를 거부하고 당신도 그의 반역에 끌어들여는 악마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악마는 나자렛 예수님까지 끌어들이려고 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실패했지요.

메모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청하는 은총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가장 작은 일들에서 은총을 구하세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일들을 완수하고 믿고 희망하는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 성 피에르 파브르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오세요.
피곤하고 배고프거나 여러 일들로 마음이 흩어졌을 때에도 그렇게 하세요.
2.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의 혼돈 속에서도
내면에 끊임없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40일간 기도하시고 악마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십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아빠,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4. 청하세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4,1-1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내 삶의 광야는?

예수님으로부터 광야에 대해 배운 점들은 이다.

내 삶의 광야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다.

내 광야에서 지금 나를 시험하는 가장 분명한 유혹은 이다.

제4주간 5일차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청하는 은총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한 걸음 더

한 영혼이 더 사랑할수록 더욱 갈망하고 더욱 희망한다.
그리고 더 많이 발견한다.

- 장피에르 드 코사드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때로 기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건너뛰려 유혹을 느끼면, 기도에서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2.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활동을 하는 중에도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당신이 원치 않는 것, 욕의 욕망에 주목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사는 것에 주목하세요.
4. 청하세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갈라 5,16-26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욕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욕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단상

영적 위로

기도를 쉽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성체가 깊은 사랑의 체험일 때가 있는가 하면 건성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영성생활의 용이함, 기도할 마음, 기쁨과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전통에서 이것을 영적 위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느낌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위안이란 당신이 가진 것과 현재의 당신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확신하고 현재에 평온히 머무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위안 때에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것이 모두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라고 합니다. 시련을 겪고 고통으로 상처도 입겠지만, 하느님이 왜 당신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의심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코네티컷에 사는 한 부인이 암이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어

느 주일에 성당에 나왔는데, 한 지인이 “얼마나 아프세요.”라고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암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위안입니다.

위안은 허황한 낙관주의나 가벼운 부정이 아닙니다. 1597년 일본에서 있었던 순교는 무엇이 영적 위안인지 잘 보여 줍니다. 성 바오로 미키와 25명의 동료 순교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비꼬듯이 “본뜰”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기쁨을 발산하며 기도하였고 대영광송을 노래하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영적 위안 상태였던 겁니다. 살해자들이 놀랐겠죠.

성숙한 제자가 영적 위안을 잃고 실망에 떨어지면 우리는 먼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위안을 주시기를 청하고 그분이 다시금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메모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청하는 은총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는 듣는 것이다.

- 데이비드 애슬린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에서 반복은 익숙한 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발걸음을 알고 있어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주지요. 그러다가 전에 못 보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명료하게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2.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이 돌면서 그분께 끌립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성령에 따른 삶이란 우리의 갈망이 성령에 따라 형성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육의 욕망에 굴복하였을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성령께 복종하는 습관과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4. 청하세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갈라 5,16-26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때이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것은 등이다.

내 깊은 갈망과 예수님의 깊은 갈망이 서로 만나는 경우는 에서였다.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으로

청하는 은총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는 듣는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견실하게 자라고 내적 평화를 지키게 해 주는
확고한 중심이라는 실재으로 거듭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 믿음을 통하여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받은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4. 청하세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거룩함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다운 성인(聖人) 모습을 다듬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예배 3,5-6.10-21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단상

선, 희망, 사랑

왜 우리는 선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머물고 무엇을 희망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상대하거나 그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성숙한 제자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기쁘고 희망에 찬 사랑의 증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느님이—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기에—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상대하거나 그와 함께 사는 경우라면 성숙한 제자는 그에게 평화와 의미가 충만한 삶의 생생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예배하고 순명함으로써 맥 빠진 규칙 준수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평온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제자들이 선하게 살고 교회에 머무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 하느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희망의 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1요한 2,3)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계명을 지킨다 함은 사랑으로 그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 사랑, 다음에 자기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느님이 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선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닌 희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과 의 인격적인 관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참조)

신뢰 속에서 희망이 자랍니다. 하나의 선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그 선행이 사랑하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정신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성령께 인도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이 그러하듯이 영원히 길이 남을 생명으로 익어 가고 있습니다.

메모

표지석

-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로이 스스로에게 초래한 혼돈에서 벗어나게끔 통치하시기로 했습니다.
- 우리는 이 통치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 몇몇을 뽑았습니다. 우리도 그에 속합니다. 즐거우면서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생각이죠.
- 우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위안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는 유혹에 놓이고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경험한 예수님처럼 지어졌습니다.
- 우리 기도는 항상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됩니다.
- 우리가 침체되고 실망에 빠지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 당신 위안의 선물을 주십사 청하고 그 분이 다시 주실 때까지 인내로이 기다립니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